

건강한 삶을 위한 유방재건술

자가조직·보형물 시술... 그녀 다시 웃다

여성의 가슴은 모성과 성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여성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마다 1만 명 가량 발생...

중년의 경우 암세포 제거를 위해 광범위한 유방 절제술을 받게 되면 여성으로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방을 만드는 방법은? =환자의 몸 다른 부위에서 근육·지방·피부 등을 떼어 내 새 유방을 만드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과 실리콘 백(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이 있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은 유방암 환자 중 미혼 여성이나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에게 적합하다. 등 뒤 어깨뼈 아래 얇게 퍼진 넓은 근육인 '광배근'과 지방 및 피부를 한꺼번에 떼어내 다시 새 유방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정상인 유방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새로 유방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광배근'을 이용한 환자인 경우 조직 양이 많지 않아 유방이 큰 환자는 보형물을 삽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더 이상 출산 계획도 없고 아랫배가 나오는 40대의 경우 아랫배 조직을 떼어 새로운 유방을 만들어 내는 게 좋다. '광배근'과 달리 아랫배 조직이 풍부해 크거나 모양 조절이 용이하다. 자가 조직으로 만든 유방은 합병증도 거의 없는데다 시간이 흘러도 정상 측 유방과 같이 처지면서 자연스럽게 변한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은 정상 측 유방이 작거나 유방암 조직만 선별적으로 잘라낸 환자에게 적합하다. 절제해 버린 유방 주변 피부를 끌어당긴 후 보형물을 넣고 끌어당긴 피부까지 봉합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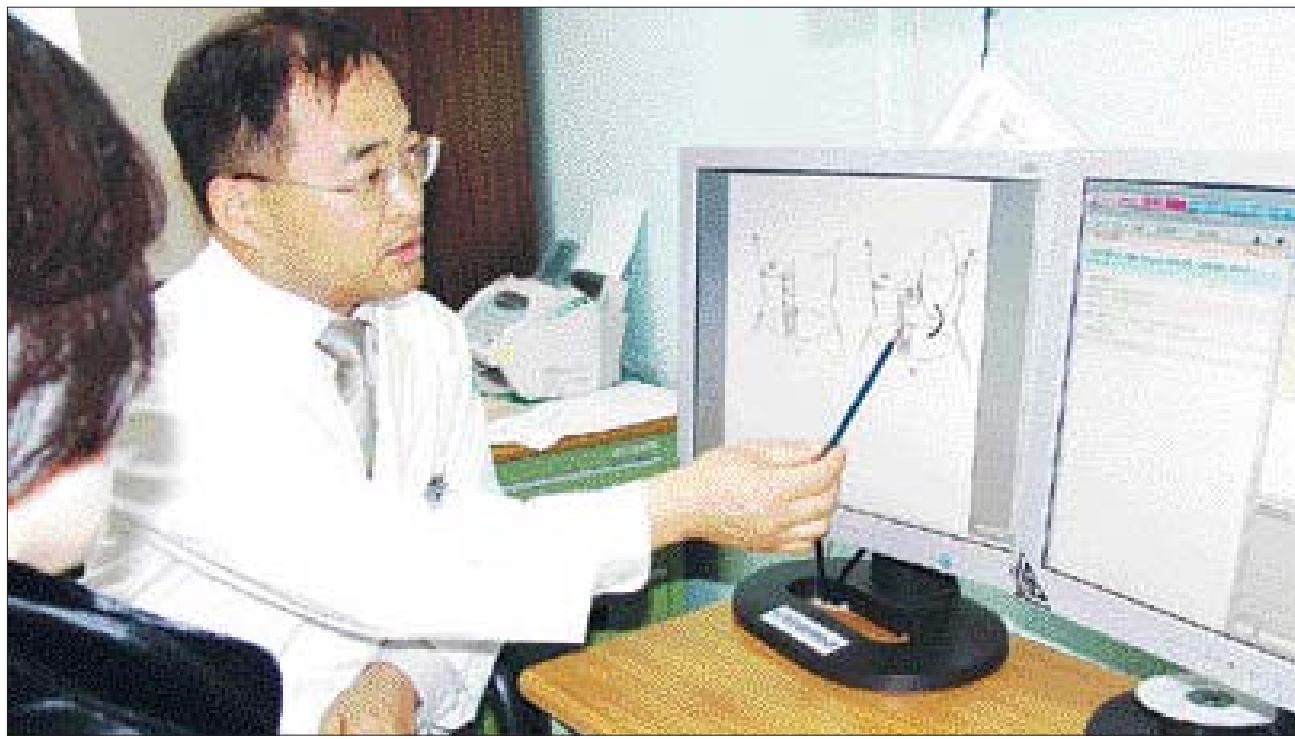
최근에는 코헤시브 질 실리콘 백이 촉감이 좋는데다 과거 실리콘 백에 비해 터지거나 내용물이 흘러내릴 일이 없어 최근 유방 확대재건에 많이 쓰이고 있다.

합병증 없고 수술후 2개월이면 운동 유방 절제 환자 10%만 재건술 받아 국소 마취로 유두·유륜 재건 수술도

한 유방은 평평한 모양을 유지해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 ◇유두 꼭지도 만들 수 있나? =유방을 만들면서 유두·유륜(유두 주위의 둥글고 흑갈색인 부분)도 재건해 줄 수 있다.

수술은 누운 상태에서 하고, 평가는 회복된 뒤 일어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유두와 유륜의 높낮이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유두와 유륜은 새 유방을 만들고 난 뒤 흐르문 치료와 항암치료가 다 끝난 뒤 새 유방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갖출 때 유두 위치를 정해 만드는 것이 좋다.

이때는 국소 마취로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이삼용 교수가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재건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도 재건 수술이 가능하다. 반영구 화장술로 자신의 피부색에 맞게 유륜에 색을 입히면 원래의 가슴처럼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수술한 흔적도 감출 수 있다.

◇수술보다 미술의 치료도 중요해 =어디까지나 암치료가 우선이고 재건은 그 다음이다. 재건술을 받는다 해도 원래 모습대로 완전히 복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친 기대는 금물.

일단 유방암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육안 관찰이나, 손으로 만지는 검사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 방사선 검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연미기자 emlee@kwangju.co.kr (도움말 전남대학교 성형외과 이삼용 교수)

동아병원 봉사단 노인시설 진료 봉사



동아병원 '동아사랑모아봉사단'(공동단장 정재훈·정규호)은 지난 8일 노인복지시설인 전남성로원을 찾아 무료 진료를 했다. <사진> '동아사랑모아봉사단'은 의료혜택이 필요한 지역이나 단체에 무료진료 등 체계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자 지난 9월 1일 결성됐다.

지역 주민들 대상 무료 건강검진

전남대병원은 오는 21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이번 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 40~60세가 지 참여할 수 있다.

가능·고지혈증·염증반응·요산 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진결과 한 달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남대병원 7동 2층 산업의학과 검사실로 오전 9시~오후 2시30분까지 방문하면 된다.

신장·체중·체지방 측정과 신장 기능·고지혈증·염증반응·요산 검사 등을 실시한다.

치매엔 생강·강황이 최고

한미 공동연구 27개 약재 비교

치매 치료효과가 큰 약재는 생강과 강황이라는 재미 한인 과학자와 국내 연구진의 공동 연구결과가 발표했다.

미국 바이오 기업 '큐렉셀' 소속 대릭 김(Darrick Kim)·김진영 박사와 건국대학교 한예선 박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27개 주요 식물성 약재를 선정하고 이들이 신경 독성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로부터 신경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를 비교했다.

이 연구는 미국 대체·보완의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대체·보완의학저널(Journal of Alternative & Complementary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팀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27개 주요 식물성 약재를 선정하고 이들이 신경 독성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로부터 신경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를 비교했다.

이 연구는 미국 대체·보완의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대체·보완의학저널(Journal of Alternative & Complementary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

병원 선택진료 불만 여전히 많다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보원 접수 건수 464건

환자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임의로 부과하거나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선택진료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보원 접수 건수 464건.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선택진료제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모두 464건으로 집계됐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진료과목별 최소한의 비선택 진료의사 비율 할당 ▲선택진료 허용범위 제한 ▲표준약관 사용 유도 ▲의료소비자 분쟁조정조직 또는 의료기관 공동민원센터 설치 ▲소관부처의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경우 환자 측에서 추가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방식의 제도.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토지. 상가. 아파트. 분양. 임대.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 토지. 토지. 상가. 아파트. 분양. 임대.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 합본(광주·나주·하순정당·당향) 지번도 책 판매중. 안경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부자퇴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갑룡. 1. 광제빌딩상가 임대(신축). 2. 원룸 매매(상촌동).